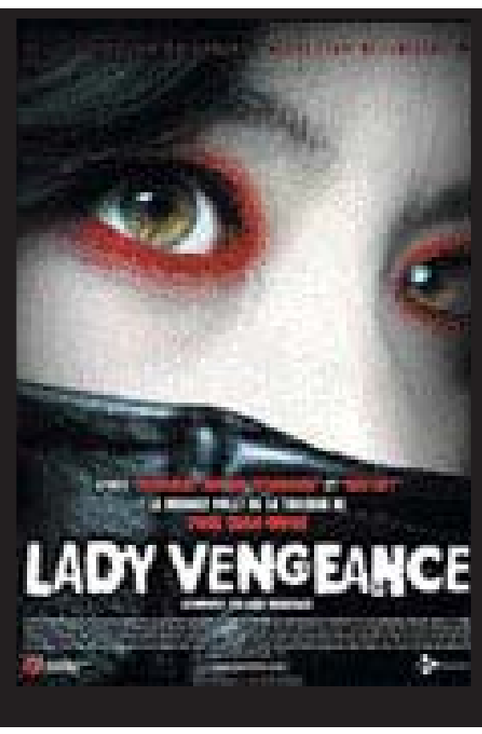
한국에서



할리우드

‘추격자’ ‘친절한 금자씨’랑 미국 간다

■ 국내 흥행작 할리우드와 잇따라 리메이크 판권 계약

‘엽기적인 그녀’ ‘장화, 홍련’ 등 미국판도 제작

국내 흥행작들이 할리우드와 잇따라 리메이크 판권 계약을 맺고 있다.

예전에는 코미디, 멜로물 등 특정 장르에 치우쳤던 데 반해 최근에는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로 확산되는 게 특징이다.

4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추격자’는 미국의 메이저 영화사인 워너브러더스가 100만달러에 리메이크 판권을 사들였다.

특히 ‘추격자’는 국내에서 가장 취약한 장르로 꼽히는 스릴러물이 ‘스릴러의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수출됐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추격자’는 양조위 등이 출연한 홍콩 영화 ‘무간도’를 각색해 ‘디파티드’라는 작품으로 내놓은 윌리엄 모나한이 시나리오를 쓸 것으로 알려졌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이 주연을 맡았던 ‘디파티드’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마틴 스콜세시에게 감독상과 작품상을 안기는 등 평단과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한편의 스릴러 영화로 역시 흥행에 성공한 김윤진 주연의 ‘세븐 데이즈’ 역시 할리우드 서밋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했다.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는 할리우드 톱스타가 주연을 맡아 리메이크 된다.

‘장화, 홍련(왼쪽)’은 미국에서 ‘테일 오브 투 시스터스(A Tale of Two Sisters)’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마쳤다.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등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으로 국내 톱스타 이영애가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았던 ‘친절한 금자씨’는 샤를리즈 테론이 직접 주연과 제작을 맡는다.

샤를리즈 테론은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다 7명을 죽이고 결국 사형을 당하는 창녀의 이야기를 그린 ‘몬스터’로 2004년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 여우 주연상을 받는 등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는 배우다.

몇년 전 판권 계약을 맺었던 작품들은 속속 제작을 마치고 개봉 대기중이다.

‘엽기적인 그녀’는 ‘마이 쌔시 걸(MY Sassy Girl)’이라는 이름으로 리메이크 됐다. 전지현과 차태현이 맡았던 배역은 드라마 ‘24’와‘내겐 너무 아찔한 그녀’로 스타덤에 오른 엘리샤 쿠스버트와 영화 ‘폴링 인 러브’의 제시 브래드포드가 출연했다. 원작이 유쾌하고 명랑한 느낌이 강했던 데 반해, 리메이크작에는 로맨틱한 분위기가 가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운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문근영, 임수정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장화, 홍련’은 ‘테일 오브 투 시스터스(A Tale of Two Sisters)’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마쳤다. 애리얼 케벨과 에밀리 브라우닝이 자매로 출연한다.

그밖에 한국영화 ‘중독’을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한 스릴러 영화 ‘포제션(Possession)’이 오는 28일 미국 전역에서 개봉된다. 2002년 개봉된 이병헌·이미연 주연의 ‘중독’은 같은 날 형과 시동생이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시동생만 깨어나지만 영혼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지는 사랑을 그린 심리 스릴러물로 할리우드판에서도 기본 줄거리는 같다.

여주인공은 ‘스쿠비두’ ‘그러지’의 사라 미셸 겔러가 맡았으며 이병헌이 열연했던 시동생 역할로는 신인배우 리 페이스가 출연한다.

지금까지 할리우드에 리메이크 판권이 팔린 작품은 20여편이 넘지만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은 3~4편에 불과하다. 다행히 올해 제작을 마친 작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공동경비 구역 JSA’, ‘조폭 마누라’, ‘가문의 영광’, ‘분신사바’, ‘령’ 등이 오래전 판권이 판매된 영화들의 제작 소식은 감감 무소식이다.

현재 미국 개봉을 거쳐 국내 개봉까지 마친 작품은 전지현·이정재 주연의 ‘시월애’를 리메이크 한 ‘레이크 하우스’로 키에누 리브스와 산드라 블록이 주연을 맡았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목! 이 영화 ‘숙명’

송승헌·지성… 스크린이 빛나다

어릴 때부터 우정을 나눠온 4명의 친구가 어쩔 수 없이 적이 돼 만나 서로의 심장을 겨누게 되는 내용을 그린 액션물이다.

이 영화가 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이유는 배우들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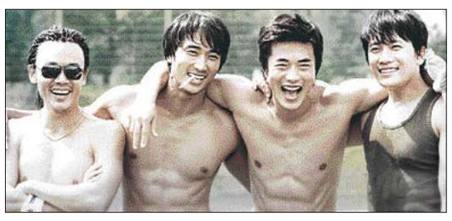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한류스타 권상우와 군대에서 제대한 후 처음 관객들을 만나는 송승헌, 여기에 최근 드라마 ‘뉴하트’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성까지 합류하면서 스크린은 더욱 빛을 발한다. 특히 배우들이 펼치는 거친 액션 연기가 눈길을 끈다.

영화 ‘파이란’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감독인 김해곤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메가폰을 잡았다.

건달의 세계에 몸을 담은 네 남자는 한 때 친구였지만 돈, 개인적 욕망 등 때문에 뒤틀린 관계가 된다.

돈을 챙겨 조직을 떠나고 싶었던 우민은 실패한 작전의 책임을 혼자 지고 2년간 옥살이를 마친 뒤 돌아온다.

한편 도완은 마약에 의지하는 폐인이 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친구들을 배신한 철중은 조직에서 승승장구하며 출세 가도를 달린다.



하지만 점차 이들의 관계는 꼬여만 가고 결국 서로를 죽고 죽이는 비극으로 치닫는다. 〈18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숙명 한류스타 송승헌, 권상우가 공동 주연한 액션 누아르 영화. 18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천일의 스캔들 헨리 8세와 두 자매 사이의 치열한 삼각관계를 다뤘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워터호스 정 붙일 곳 없는 소년과 전설의 괴물의 우정을 그린 판타지 영화.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
어메이징 그레이스 27세에 국회에 입성한 윌리엄 윌버포스의 개인사와 정치적 활약상을 그렸다. 전체 관람가.	콜롬버스(상무), CGV(상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코엔 형제가 만든 스릴러로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았다. 18세 관람가.	콜롬버스(하남)
브레이브 스토리 미야베 미유키의 동명 판타지 소설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전체 관람가.	CGV(첨단)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리얼돌(Real-doll) 인형에 파묻혀 사는 소심한 남자의 독특한 로맨스. 15세 관람가.	씨너스 전대
10,000 BC 야생과 문명의 충돌을 그린 선사시대 이야기. 15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스텝업 2:더 스트리트 춤을 소재로 한 청춘영화. 스타일이 다른 남녀가 춤을 통해 교감한다. 전편의 12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허밍 한지혜, 이천희 주연의 판타지 로맨스 영화. 12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연을 쫓는 아이 잃어버린 친구를 찾아 떠나는 여행. 12세 관람가.	콜롬버스(상무)
27번의 결혼 리허설 지겹도록 들러리만 섰던 그녀가 제짝 찾기에 나선다. 15세 관람가.	메가박스, 콜롬버스(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엔터
마이 뉴 파트너 15년만에 돌아온 비리 형사 안성기와 열혈형사 조한선이 만났다. 15세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집결호 죽지못해 사는 한 군인의 고통을 그린 전쟁 후일담. 12세 관람가.	엔터